

# 수제맥주&블루스 페스티벌 열풍

### 군산서 16일 개막... 미국·일본 등 국내·외 블루스밴드 16팀·로컬밴드 10개팀 참여

오는 16일부터 개최되는 2023 군산 수제맥주&블루스 페스티벌이 다채로운 이벤트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2023 군산 수제맥주 페스티벌 16일 개막식은 주한미대사관 농무부와 농업무역관에서 참석해 축제 개막을 축하하고, 군산맥아로 만든 한미동맹 70주년 기념맥주를 소개한다. 다음날인 17일에는 미대사관 직원들이 페스티벌 관람 계획을 갖고 있다.

또한, 군산시의 대만 교류도시인 신베이시의 수제맥주 업체 '타이완 헤드브루어'에서 참가해 수제맥주 2종을 한정 판매할 계획이다. 이에 한국 대

만대표부에서도 개막식에 참가할 예정이다. 가정용 수제맥주 제조기를 출시하고 있는 LG전자도 군산맥아를 이용한 제품 개발을 군산시와 협업하고 있으며, 이번 페스티벌에 제품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가정용 수제맥주 제조기를 관람객에게 경품으로 제공한다.

군산의 대표적인 6개 관내 호텔들도 호텔 이용권을 관람객들에게 경품으로 제공,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30개 업체가 참여해, 군산 수제맥주 페스티벌이 관내 숙박업체와 소상공인들의 동반성장 계기가 되고 있다.

올해도 블루스 음악과 접목해 개최되는 2023 군산 수제맥주&블루스 페스티벌에는 미국밴드 2팀, 일본밴드 1팀 등 국내외 정상급 블루스밴드 16개팀이 참여하고, 지역 내 로컬밴드도 10팀이 참여한다.

특히 호원대 실용 음악학부 38명이 참여하는 '호원잔타' 콘서트를 16일과 17일 90분의 공연할 예정이다. 블루스, R&B, 팝, 발라드 등 다양한 장르의 연주를 선보여, 제2의 BTS를 꿈꾸는 지역 학생들의 수준높은 라이브 연주를 관람할 수 있다.

/군산=김판곤 기자

## “국인산업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반대”

###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14일 제256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국인산업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한경봉 의원은 “군산시에는 이미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및 소각시설, 환경부 지정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업체의 사업장·지정폐기물 매립시설과 소각시설 등 총 5개의 폐기물 매립시설과 소각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장폐기물과 지정폐기물 매립시설을 운영 중인 국민산업은 동일 매립장 내에 추가로 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운영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2020년 12월 28일 전북 지방환경청에 제출했다”며 “두 차례에 걸친 군산시의 부적정 의견 통보에도 불구하고, 전북지방환경청은 결국 지난해 8월 말 국민산업의 폐기물 소각시설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 통보를 함으로써 국민산업에게 3년 이내에 허가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산업은 금년 1월 2일 전북 지방환경청에 통합관리사업장 사전협

의 신청서를 제출했고, 지난 6월 9일 군산시에 해당 소각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했다”며 “국민산업이 폐기물 최종처분시설인 매립시설에 더하여 중간처분시설인 소각시설까지 설치? 운영하게 된다면 해당 폐기물 처리시설의 전체 운영 기간은 현저히 늘어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군산시는 장기간 대기오염의 위험성을 감수해야 하며, 군산시민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박탈당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군산시는 이미 국민산업의 해당 폐기물 소각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2021년 2월 9일과 2022년 4월 18일 두 차례의 부적정 의견 제시 내용에서 군산시의 연평균 초미세먼지가 환경기준을 훨씬 상회하고, 전북도 내에서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과 발암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배출량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서, 2020년 3월 31일 대기관리구역으로 지정된 만큼 현재의 대기환경이 악화될 경우와 함께 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과정에서 필연 다이옥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이 증가할 것으로 인근 오식도동의 주거지역과 비응항의 해양관광 상업지역의 주거 및 생활환경 피해가 크게 우려됨을 표명할 바 있다”고 성토했고 “주민 생활환경 및 건강보호 위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 전체 벼농가 70% 스마트 모심기농법... 70억 비용절감

### 익산시, 벼 드문모심기로 노동력·병해충 50~70% 감소... 쌀 생산량 동일

익산시 전체 벼재배농가 70%가 스마트 모심기 농법을 도입해 연간 70억의 생산비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시는 기존 모심기 양을 대폭 줄이는 벼 드문모심기 사업으로 일손부담을 덜고 농업경쟁력을 대폭 높였다고 밝혔다.

드문모심기는 모판의 모를 못자리에서 논으로 옮겨심을 때 3.3㎡당 이앙포기수를 기존 80포기에서 50~60포기로 줄여 간격을 넓히고 벼 한 포기당 심는 모의 수도 기존 10~15본에서 3~5본 내외로 대폭 줄여 심는 재배기술이다.

모를 심는 간격과 한지라에 심는 모의 양을 대폭 줄여 기존 모내기 방식에 필요한 벼 육묘상자 수보다 50~70%까지 줄일 수 있다. 더욱이 노동력과 병해충은 감소되고 수확량은 큰 차이가 없어 시가 지난 2018년부터 스마트 농업기술로 드문모심기 도입 이후 재배면적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첫해 오산농협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59곳이 참여해 전체 벼 재배면적의 70%에 해당하는 1만1천5백ha 규모 생산단지에서 드문모심기가 진행된다. 농촌진흥청의 드문모심기 생산비가 일반 재배보다 10.4%(300평) 6만4천 500원 가량 절감 효과를 보인다는 결

과를 토대로 시는 연간 70억원의 생산비 절감할 것으로 추정한다. 시는 다양한 효과가 있는 벼 드문모심기 생산단지를 단계적으로 확산해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 농촌 경제 활성화에 도움 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오는 2025년까지 80억, 1만4,000ha까지 확대할 목표로 지원사업을 추진해 최대 100억원 가량의 생산비를 절감할 것으로 기대한다.

정현을 시장은 “농가 경영비와 노동력을 절감하면서 병해충 발생도 줄일 수 있는 드문모심기를 많은 농민들이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훈 기자

##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 공약 이행하라”

### 군산시의회, 우종삼 의원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14일 제256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 공약 이행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우종삼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새만금 메가시티·국제투자진흥지구 선정 공약을 전라북도 지역 공약 1번으로 제시한 바 있는데 군산·김제·부안을 새만금 메가시티로 통합·조성하기 위해 새만금 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고, 새만금 특별위원회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고 새만금 국제공항을 조기 착공하는 등 전북의 산업지도를 획기적으로 재편하겠다고 공언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당선 후에도 ‘새만금은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전북의 젓줄이자 대한민국 제1의 미래성장 동력’이라며,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과 충분한

한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새만금을 시작으로 다양한 지역 현안 사업을 꼼꼼히 챙길 것을 거듭 약속하기도 하였다”고 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취임 1년이 훨씬 지난 현재까지도 새만금 메가시티 공약에 대하여 방향 제시도 없이 무책임하게 방관하고 있고, 전북도는 뚜렷한 목표를 정하지 못하고 표류 중이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에만 집중하여 군산, 김제, 부안 간의 지역분쟁을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있는 형국이다”며 “김제시는 표면적으로는 전북발전을 운운하고 이면적으로는 군산새만금신항 등에 대한 ‘선 관할권 인정’만을 주장하며 군산시와의 심각한 분열과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더 이상의 지역 간의 분쟁을 멈추고 대응적 차원의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 공약 이행을 촉구하며 김제시는 전북도 발전을 위해 군산, 김제, 부안 3개 시·군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통합에 동참할 것을 건의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 익산시, 대만여행업계에 ‘2023 익산 방문의 해’ 적극 홍보

익산시가 대만 여행업계에 지자체 대표 관광정책으로 주목을 받으며 2023 익산방문의 해를 적극 알렸다.

시는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13일부터 15일까지 강원 강릉시에서 열린 ‘제36차 KATA/TVA 한·대만 관광교류회의’에 참가했다.

이번 회의는 상호교류 300만 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관광 재개 전략을 주제로 한국여행업협회(KATA)와 타이완관광협회(TVA) 회원사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주 한국 타이베이대표부, 타이완관광청서물사무소, 인·아



웃바운드 여행사 대표 등 200여 명이 참가했다. 시는 양국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기반으로 테마관광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대만 여행업계 B2B 시장 개척을 위해 공격적 관광 마케팅을 펼쳤다. 특히 한국 지자체 대표단 자격으로

참가해 익산시 관광콘텐츠와 시 인센티브 지원사업, 관광정책을 발표하고 2023 익산 방문의 해를 홍보하며 대만 여행업계에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대만 여행업계는 익산 미륵사지, 교도소 세트장, 왕궁보보테마관광지 등 풍부한 문화관광자원과 익산 문화재 여행, 서동축제, 미륵사지 미디어아트 페스타 등 야간경제 관광 콘텐츠를 대만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우수한 관광자원으로 평가했다.

시 관계자는 “한-대만간 관광자원과 정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국제관광 활성화를 위해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 지역 소식통

#### 군산시, 제1분기 자동차세 117억원 부과

군산시는 14일 2023년 제1분기 자동차세 9만15,395건, 117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다만, 신차를 구입 했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오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된 금액이 부과된다.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에 전액 부과되고, 1월과 3월 연납 차량은 이번 달에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6월 중 2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수 있으며, 선납금액의 7%를 공제받을 수 있다. 정기분 고지서는 이달 12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된다.

/군산=김판곤 기자

#### 익산여성새일센터, 경력 단절여성 취업박람회

익산여성새일하기센터(센터장 장정남)는 14일 여성회관 3층에서 경력단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들의 성공적인 취업취원을 위해 새일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번 박람회에는 하림산업, (주)한소아재약, 삼양식품(주), 나리천(주)농업회사법인, 마음사랑복지센터, 호호주근보호센터 6개 기업에서 60명 채용을 목표로 한다. 인사담당자들이 직접 참여해 현장면접을 통해 기업에 맞는 여성 근로자를 채용했다.

채용계획이 있는 오산벤처지, KCMC 외 10개의 기업도 간접 구인 업체로 행사에 참여했다. 이번 새일취업박람회는 직업교육훈련 수료생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구직자와 기업체의 현장 면접 이외에도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컨설팅, 임금·연차수당·퇴직금 등에 관한 인·사·노무상담,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캠페인 등의 부스를 운영하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